

## 미드-퍼시픽 초등학교 20주년 기념: 혁신과 공동체의 유산

올해는 미드-퍼시픽 초등학교가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는 학교의 성장, 혁신, 그리고 변함없는 공동체 지원의 여정을 기념하는 이정표입니다. 미드-퍼시픽 초등학교의 이야기는 단지 교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1930년대에 문을 연 작은 학교인 에피파니 학교의 겸손한 시작에서 뿌리내린 변혁의 이야기입니다.

### 에피파니에서 미드-퍼시픽으로: 회복력의 여정

에피파니 학교는 1930년대 유치원으로 시작하여 시간이 지나며 6학년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후반, 중학교의 등장으로 6학년 학생 수가 줄어들며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에드나 허시 박사의 지도 아래, 학교 이사회와 공동체는 학생들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2002년, 하와이 독립학교협회(HAIS) 회의에서 에드나 허시 박사는 당시 미드-퍼시픽 학교의 회장이었던 조 라이스와의 만남을 계획했습니다. 이 대화는 에피파니 학교의 미래를 재정적일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2004-2005년, 강력한 공동체 지원을 바탕으로 6학년 학생들이 미드-퍼시픽 중학교로 전학했고, 유치원부터 5학년 학생들은 미드-퍼시픽에 합류하면서 미드-퍼시픽 초등학교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유치원도 설립되었습니다.

### 교육과정의 혁신 수용

미드-퍼시픽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레지오 에밀리아(Reggio Emilia) 교육법을 채택한 것입니다. 이 교육법은 이탈리아 레지오 에밀리아를 방문한 두 명의 교사가 자발적으로 형성된 교육과정을 관찰한 경험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미드-퍼시픽은 이 원칙들을 탐구 기반 학습 모델에 통합했습니다. 이 접근법의 핵심 원칙은 아이들이 자신의 학습 여정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다는 믿음입니다. 이를 통해 호기심, 비판적 사고, 그리고 깊은 이해를 촉진합니다.

"미드-퍼시픽 초등학교에서 우리의 사회과학 및 과학 교육과정은 아이들의 질문과 관심사에서 출발합니다."라고 허시 박사는 말합니다. "학생들의 질문은 수업을 이끌며, 각 아이가 스스로 학습을 주도하는 역동적인 학습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탐구 기반 모델은 진화하며 교사들이 그 효과성에 대한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교육과정은 주 교육 기준에 맞춰져 있지만, 학생 주도의 탐색과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독특한 접근을 통해 학생들이 세계적 준비를 갖춘 학습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 인성과 공동체 구축

학문적 성취를 넘어서, 미드-퍼시픽 초등학교의 핵심에는 바로 인성 교육이 있습니다. 학교는 존중, 공감, 책임감을 포함한 가치를 학생들에게 심어주며, 이는 자신, 공동체, 그리고 세계에 대한 책임감으로 이어집니다. 학교의 공동체 행사인 쿠푸나 데이(구 조부모의 날)와

스푸크티비티(할로윈 행사)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학생, 부모, 교사 간의 유대감을 강화합니다. 팬데믹 중에도 가상 행사로 전 세계에서 참여할 수 있어 공동체 의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는 가장 큰 힘입니다."라고 허시 박사는 말합니다. "부모님, 교직원, 동문들의 지원 덕분에 모든 기념행사가 의미를 갖고 학생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며: 다음 **20**년을 향한 포부

미드-퍼시픽 초등학교는 **20**주년을 기념하면서, 허시 박사는 미래의 학교와 언젠가 세계를 이끌 학생들에 대해 깊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포부 중 하나는 탐구 기반 학습과 인성 교육에 대한 학교의 헌신을 심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경 다양성 학습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과 교사들의 전문성 개발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이는 쿠푸 호 아카데미와 북미 레지오 에밀리아 연맹과 같은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2027**년 예정된 '모자이크' 전시는 레지오 에밀리아 교육법을 소개하며, 국제적인 주목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는 미드-퍼시픽의 혁신적인 교육 리더로서의 명성을 더욱 공고히 할 것입니다.

허시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지원을 통해, 미드-퍼시픽 초등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장하고 번창할 것입니다."

#### 사진 설명

앞줄: Leo Hussey '34, Coco Salassa '37, Linnea Kaneko '37, and Anna Hasegawa '38

두 번째 줄: Nainoa Gregory '35, Olivia Williams '32, Luca Hussey '34, Dr. Edna Hussey, Gyasi Kihe '33, Ismail Ashraf '35, and Ryotaro Uda '32.